

“저렴한 분양가 위해 최선”

익산시, 총량관리 추진... 수요·공급 조절 무분별한 신규 아파트 제한 강화

익산시가 아파트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급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13일 시는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2만9천세대를 총량으로 설정한 공동주택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연도별 공급과잉과 부족 여부를 판단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공동주택과 주택 밀집지에 대한 단계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계획 수립한다.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불필요한 공동주택 인허가 제한을 강화해 적재적소에 공동주택 공급하도록 하고,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는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소규모 난개발은 지양하고 공동화를 방지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선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의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도시경관과 도심의 일조·조망·통풍·확보 등 도시주거환경을 위해 높이 관리원칙을 고시·운영하여 일반주거지역은 30층 미만, 상업지역은 40층 미만으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익산지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약 10년간 아파트 공급이 저조하여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최근

분양한 마동공원 자이 그랜드파크의 1순위 최대 경쟁률이 40대 1을 넘어선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익산시에는 2026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6천161세대, 평화지구 1천 382세대, 송학축전지구 886세대, 중앙동 포스코 741세대 등 민간 아파트 2만2천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신규 아파트가 적정한 분양가로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사전검토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별도 구성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입지환경, 주변여건, 사업방식, 분양시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분양가를 유도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익산 다이로움을 활용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익산시, 다이로움 3만원 이상 사용 시 이벤트 자동 응모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익산다이로움을 활용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익산다이로움 설명회 전통시장 장보기 추천 이벤트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에 관내 전통시장 11개소(금마시장, 함열시장, 황등시장, 여산시장, 남부시장, 구시장, 중앙시장, 매일시장, 서동시장, 북부시장, 익산장) 안에 있는 상점에서 익산사랑상품권(익산다이로움)을 3만원 이상 사용하면 이벤트에 자동 응모가 된다.

당첨자에게는 행사 기간 20일 동안 전통시장 이용 합산 금액이 30만원 이상 5만원 이내일 경우 1만원,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만원의 다이로움 포인트를 2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시는 전통시장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이벤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이용자를 추출하며, 지급대상자가 2천명 이상일 경우에는 인터넷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해 경기침체극복 특별이벤트로 다이로움 연중 20% 혜택과 수시로 각종 맞춤형 이벤트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 시장 만족도 1위 평가 및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정현을 시장은 “실명제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많은 이용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출생아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익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출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국가책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추진하는 제도로, 모든 출생아 동을 대상으로 출생 순위와 관계 없이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소멸된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또는 온라인(복지포털 또는 정부24)으로 가능하며, 최초 지급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개인정보 관리 최우수등급 기관 선정

군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에서 99.03점을 받아 '최고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총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 분야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 평가하고 있다.

관리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대책, 개인정보침해대책 등 3개 분야이다.

평가기준은 13개 지표, 21개 항목을 세부화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구성한 심사위원이 각 분야별 점수를 산출하고 기관에 따라 현장평가를 수행하기도 한다.

/군산=남현봉 기자

행정명령이행시설 도 재난지원금 17일부터 접수

군산시, 9500여개소 사업장 대상... 개소당 80만원 지급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된다.

군산시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9,500여개소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접수를 진행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5월 1일 ~ 22년 1월 16일 기간 중 감염병예방방역에 의거 중대별, 전라북도, 군산시의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군산시 소재 시설

(영업장)이다. ▲금년 1월 16일까지 사업장등록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휴업 중인 시설 중 2020년 5월 1일 이후 휴업한 시설은 지급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대상 업종으로는 ▲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시설, ▲종교시설, ▲살매의 체육시설, ▲학원(교습소)·독서실, ▲유흥시설 등이 해당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영업허가증(신고증) ▲

통장사본 등이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 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및 소관부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하는 자유업종의 경우 별도 관련 부서의 행정명령 이행확인 절차 이후 지급이 가능하니 반드시 소관부서에 문의 후 신청이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청자에 대한 시설별 소관부서의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설 명절 이전 1차분을 지급하고 그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의 새로운 관광 핫플레이스, '말랭이 마을'

말랭이 마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며 새로운 군산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말랭이마을 조성사업은 신항동 일원 1만㎡에 전시관 8동, 레지던스 9동, 서비스공간 8동으로 지난 2015년에 시작해 2021년 완공됐다.

투입된 사업비는 총 72억으로 2014년 1시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선정돼 2017년 조성공사를 착공, 2020년 건축물을 준공하고 지난해 김수미길, 소리공간 전시체험시설 타일탑의 및 잔여공사 추진,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전체 사업을 준공했다.

앞으로 레지던스 작가가 7개소 13명이 입주 중에 있으며 오는 2월 초 전시체험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



숙적인 시설물 보강 및 레지던스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마을 장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김일준 군산시장은 지난 12일 현장방문을 통해 레지던스 7, 6, 5호 방문 후 영화관 추억전시관, 이야기마당, 신항양조장 등을 돌아봤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군산시가 2022년 주요 현안사업의 내실있는 실행방안을 중점 논의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새해 주요 중점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일준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로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전체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실현을 완수하기

위한 국소별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와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 사항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및 산업단지 대개조사업, 그린수소 생산플러스터 구축사업, 군산형 일자리사업, 중소·중견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중심의 미래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의 내실있는 실행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 최근 일상회복을 앞두고 다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관리 체계 재점검을 통해 확산방지 방

안을 논의하는 한편, 문화도시 조성사업,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센터 조성사업, 군산 철길숲 및 새마을 허브숲 조성사업,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 가족센터 건립사업 등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도 꼼꼼히 점검했다.

강 시장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더욱 가속화 되는 사회변화 속에서 탄소중립이 인류 공생의 과제라 논의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사회전 부문에 걸쳐 친환경 저탄소 구조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